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김경옥 이수정

경기대학교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나 한국에서 비교적 최근 들어 사회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60-70년대에 연쇄살인 범죄가 증가하자 법집행 기관들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압력이 강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집행 기관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미국 FBI 에서는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을 파악하여 범죄 해결의 단서를 찾고자 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FBI의 프로파일링 기법은 그 후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유형 분석이 수행되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분석이 FBI 수사관들의 수사 경험과 직관적 판단에 의존한 바 컸기 때문에, FBI의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서는 과학성 차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범죄자에 대한 구조화된 인터뷰, 사건자료, 심리검사 결과 등등의 전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에 따른 공통의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는 통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이 분야에 있어 최근의 연구추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연구가 서구에 비하여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향후 한국의 연쇄살인 범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프로파일링, 연쇄살인

문헌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연쇄살인 사건은 15세기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Gilles de Rais의 연쇄살인으로써 이 사건에 의하여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고문, 강간 및 살해당한 기록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후 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범행 이후의 성적 행위를 위해서

잘라두었다고 알려진다. 또한 동시대에 연쇄살인범 Countess Elizabeth Bathory 는 어린 소녀들을 고문하고 살해하였으며, 자신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피로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Myers, Burgess, Burgess & Douglas, 1999). 이러한 연쇄살인범들은 당시 사회를

김경옥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이수정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본 논문은 두 번째 저자가 수혜한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에 의해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놀라게 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정신이상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1900년대에 이르러 연쇄살인이 법정(forensic) 및 임상(clinical) 분야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Meloy, 2000), 여전히 학계의 주 관심분야는 되지 못하였고 연쇄살인에 대한 연구 또한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연쇄살인 범죄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Mott, 1999; Egger, 1997; Hickey, 1997; Holmes & Holmes, 1998; Jenkins, 1994; Ressler, Burgess & Douglas, 1988), 이것은 범죄 발생의 양적·질적인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간 대략 35명 정도의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약 5,000명 정도의 피해자가 살해되고 있다고 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인사건의 1/3 정도가 연쇄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Holmes & Holmes, 1996). 이와 같이 연쇄살인에 의한 피해자의 정확한 수치를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에서 연쇄살인의 발생율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미국에서는 연쇄살인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던 지난 1970년대부터 연쇄살인 범죄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와 수사기법(범죄자 프로파일링)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연쇄살인에 대한 연구 및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연쇄살인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지만, 낮은 발생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대중매체와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꾸준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1986년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약 10건의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하여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9차례 강도 살인을 저지른 정두영 사건, 1975년 18명을 살인한 김대두 사건 등 연쇄살인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던 바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영철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대되었고, 과거에 일어났던 몇몇 살인 사건들에 대하여도 연쇄살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

하여 아직은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범죄 유형화의 측면에서도 연쇄살인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쇄살인범죄의 개념, 특성을 이해하고 또한 연쇄살인범죄의 유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죄 연구 및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개관

연쇄살인범죄의 개념

연쇄살인이라는 용어는 1974년에서 1979년까지 약 30여명의 여성을 살해한 Ted Bundy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Simons, 2001). 이후 1970년대 미국에서는 연쇄살인(serial murder) 및 다중살인(mass murder)의 발생율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 범집행기관들은 사건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수사기법들을 모두 동원하였다. 연쇄살인범죄는 각각의 범죄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범죄의 원인(동기)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범죄들 간의 동질성을 파악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Mott, 1999). 그러나 비교적 최근 들어 수사과학(investigative science) 및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이 발달하면서, 연쇄살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수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FBI의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 BSU)¹⁾였다.

1) 1972년 버지니아 주 콰티코(Quantico)에 위치한 FBI 아카데미 내에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 BSU)가 설치되었으며, 행동과학부에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범죄자 프로파일링 대상 범죄에 대한 연구,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 교육을 전담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가 신설되어 범죄수사분석센터(CIAP), 방화·폭파사건수사서비스(ABIS), 폭력범죄자체포프로그램(ViCAP)의 세부 부서로 구성된 프로파일링·행동평가부(PBAU)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Woodworth & Stephen, 1999; 권창국, 2002).

1978년 초에 이르러 행동과학부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된 연쇄살인범(serial killer)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Hazelwood와 Douglas(1980)는 연쇄 성적 살인(serial sexual homicide)을 체계적 범주(organized nonsocial category)와 비체계적 범주(disorganized asocial category)로 구분하였다.²⁾ Hazelwood와 Douglas(1980)의 이분법적 유형론은 FBI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분법적 유형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연쇄살인의 유형을 검토하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Douglas, Ressler, Burgess 그리고 Burgess(1992)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을 모델로 하여 살인 방화, 강간 및 성폭행을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범죄분류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을 발간하였다(Myers et. al, 1999). 범죄분류매뉴얼은 범죄의 유형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고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FBI의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에서 발간되었다. 매뉴얼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죄유형 별 용어의 정의는 FBI에서 범죄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매년 발간하는 공식적인 범죄통계인 공식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 UCR)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위 범주로서 살인, 방화 및 성폭행을 구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자면 피해자, 범죄현장, 및 피해자와 범죄자의 상호작용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피해자, 범죄유형, 범행 스타일에 의한 범주와 동기에 의

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범죄분석매뉴얼은 FBI에서 축적한 광범위한 자료와 범죄학 이론을 근거로 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상세한 범죄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쇄살인범죄는 살인범죄의 하위 유형에 포함되는 범죄이므로 범죄분석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살인범죄의 범주들 중 특히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해자 수와 공간적 특성에 의한 구분

먼저 피해자의 수에 의하여 살인범죄를 분류하면, 단일 살인(single homicide), 이중 살인(double homicide), 삼중 살인(triple homicide), 다중 살인(mass homicide)으로 구분하게 된다. 단일 살인은 한 사건 한 장소에서 1명의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이며, 이중 살인은 한 사건, 한 장소에서 2명의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 삼중 살인은 한 사건, 한 장소에서 3명의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 그리고 다중 살인은 한 사건, 한 장소에서 4명 이상의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중 살인은 다시 두 범주로 분류되는데, 고전적 다중 살인(classic mass murder)과 가족 다중 살인(family mass murder)이 그것이다. 고전적 다중 살인은 수초, 수분 혹은 몇 일에 걸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다수에 대한 살인 사건을 의미하며, 가족 다중 살인은 4명 이상의 가족이 한꺼번에 살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가해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중 살인/자살(mass murder/suicide)로 분류되며, 가해자가 자살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족 다중 살인으로 분류된다.

한편 연속 살인(spree murder)과 연쇄 살인(serial murder)은 범죄가 발생한 공간적 특성과 피해자의 수에 의해서 분류되는데, 연속 살인(spree murder)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때 범죄자는 심리적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거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1949년 9월 6일, 뉴저지에서 연속 살인범인 Howard Unruh는 자신의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총을 발사하여 1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경우 범죄가 발생한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하였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중살인(mass murder)이 아닌 연속살인(spree murder)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serial murder)

2) 체계적 범죄자(organized offender)와 비체계적 범죄자(disorganized offender)는 미국 FBI 행동과학부에서 연쇄살인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대표적 방식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학자간 견해가 아직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자에 따라서, organized offender를 ‘체계적 범죄자’(Ressler & Shachtman, 1992), ‘정연한 범죄자’(박광배, 2001), ‘조직적 범죄자’(곽대경, 2001; 임준태, 2003), ‘질서형 범죄자’(노용우, 2000)라고 지칭하였으며 disorganized offender는 ‘비체계적 범죄자’(Ressler & Shachtman, 1992), ‘혼란된 범죄자’(박광배, 2001), ‘비조직적 범죄자’(곽대경, 2001; 임준태, 2003), ‘무질서형 범죄자’(노용우, 2000)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 범죄자(organized offender)와 비체계적 범죄자(disorganized offender)로 지칭하고자 한다.

은 3곳 이상의 개별적인 장소들에서 3건 이상의 개별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때 범죄자는 살인사건을 행하는 동안 심리적 냉각기를 갖게 된다. 연쇄 살인범은 범죄와 관련된 환상을 갖고 상세하게 범행 내용을 계획하며, 범죄자는 마지막으로 저지른 살인으로부터 심리적 냉각상태가 되었을 때,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이러한 냉각기간은 최소한 수일, 수주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Lester, 1995).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최소한 30일 정도의 심리적 냉각기가 나타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Douglas, Ressler, Burgess & Burgess, 1992; Lester,

1995). 이와 같은 개념에 근거하여 볼 때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구분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인 피해자가 일련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가 즉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의 개별성과 심리적 냉각기의 존재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근거하여 연쇄살인범죄의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기에 의한 구분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의 분류 (Douglas, Burgess, Bur-

표 1. Douglas, Ressler, Burgess와 Burgess(1992)에 의한 분류

범죄 사업적 이익을 위한 살인 (Criminal enterprise homicide)	청부살인 (contract(third party) killing)	
	집단 동기적 살인(gang-motivated murder)	
	범죄적인 경쟁에 의한 살인(criminal competition homicide)	
	유괴 살인(kidnap murder)	
	장물과 관련된 살인(product tampering homicide)	
	보험 및 상속과 관련된 살인 (insurance inheritance-related death)	개인 이익을 위한 살인 (Individual profit murder)
	약물과 관련된 살인(drug murder)	사업적 이익을 위한 살인 (Commercial profit murder)
	중범죄 살인 (Felony murder)	무차별적 중범죄 살인 (Indiscriminate felony murder)
	색정적 살인 (Erotomaniz-motivated killing)	상황적 중범죄 살인 (Situational felony murder)
	가정폭력적 살인(Domestic homicide)	임의적 살인 (Spontaneous domestic homicide)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살인 (Personal cause homicide)	논쟁 및 갈등에 의한 살인 (Argument/Conflict murder)	가장된 살인 (Staged domestic homicide)
	권력 살인 (Authority killing)	논쟁에 의한 살인 (Argument murder)
	보복 살인 (Revenge killing)	갈등에 의한 살인 (Conflict murder)
	동기가 특정하지 않은 살인(Nonspecific-Motive killing)	
	극단주의 살인(Extremist homicide)	정치적 극단주의에 의한 살인 (Political extremist homicide)
		종교적 극단주의에 의한 살인 (Religious extremist homicide)
		사회경제적 극단주의에 의한 살인 (Socioeconomic extremist homicide)
	자비/영웅적 살인 (Mercy/hero homicide)	자비적 살인 (Mercy homicide)
		영웅적 살인 (Hero homicide)
	인질 살인 (Hostage murder)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체계적 성적 살인(Organized sexual homicide)	
	비체계적 성적 살인 (Disorganized sexual homicide)	
	혼합형 성적 살인 (Mixed sexual homicide)	
	가학적 살인 (Sadistic murder)	
집단적 원인에 의한 살인 (Group cause homicide)	의식 살인 (Cult murder)	
	극단주의적 살인(Extremist murder)	준군사적 극단주의에 의한 살인 (Paramilitary extremist murder)
		인질 극단주의에 의한 살인 (Hostage extremist murder)
	집단적 흥분(동요)에 의한 살인(Group excitement homicide)	

자료 : Douglas, Ressler, Burgess & Burgess, 1992.

gess & Ressler, 1992)는 살인의 유형별로 범행동기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지 일반적인 살인범죄의 동기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살인범죄의 동기 중에서 특히 연쇄살인범들은 어떠한 동기를 갖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살인범죄의 동기는 4개의 큰 범주와 24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게 되는데, 범죄적 이익을 위한 동기, 개인적 원인에 의한 동기, 성적 동기, 집단적 원인에 의한 동기가 큰 범주에 해당되며, 각 동기유형은 다시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범죄적 이익을 위한 동기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혹은 갇힌 공간의 갈등이나 경쟁과 같은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몸값을 받아내기 위한 유괴살인이나 한국에서도 간간히 발생되고 있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적 원인에 의한 살인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하여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원한, 치정, 극단적 가치관 등에 의한 살인이 포함된다. 성적 동기는 개인적 동기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지만 살인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연쇄살인의 동기 또한 이 유형에 대부분 포함된다고 하는데(Meloy, 2000; Beasley, 2004; Ressler, Burgess & Douglas, 1988; Warren, Hazelwood & Dietz, 1996), 때때로 범죄자에 따라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살인을 하기도 한다. 한 예로써 7명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에 의하면(Beasley, 2004), 7명 중에서 4명이 성적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3명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의 소유물 중에서 보석이나 차량, 돈을 훔쳐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 이익에 의한 살인에는 사이비 종교 등에서 종교적 의식의 하나로써 살인을 자행하는 경우나 테러와 같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러한 유형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살인과 유사하지만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구별된다.

2. 연쇄살인범의 특성

연쇄살인범의 아동기

연쇄 살인범은 하루아침에 살인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Simons, 2001; Gerdes, 2000).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연쇄살인범

들은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장기간의 사회적 박탈 및 심리적인 학대 상태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많은 경우에 가족들 중 정신질환, 마약 및 알콜중독 그리고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받게 되고 성적인 기능장애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고도 한다(Gerdes, 2000; Beasley, 2004). 또한 이들은 어린 시절에 자신들이 받았던 처벌을 불공정하고 학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냉담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Simons, 2001). 적절한 역할 모델이 되어줄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있더라도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학대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진다(Simons, 2001; Egger, 1997). 연쇄살인범들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방어기제를 발달시키거나 사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학교나 사회, 직장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따라서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에서의 부정적응으로 인하여 적절한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되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하게 되어 여러 가지 환상을 키워나가게 되며,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환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Simons, 2001; Gerdes, 2000; Lester, 1995).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연쇄살인범과의 대화나 그들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고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모두 연쇄살인범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공간적 이동성

공간적인 특성으로 연쇄살인범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하는 살인범(place-specific killer)과 이동성 살인범(traveling killer/interjurisdictional killer)으로 연쇄살인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 범행을 하는 살인범은 오직 한 곳에서만 살인을 하는 유형이며, 이동성 살인범은 많은 州 및 지역에 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이다. 특히 시체의 유기장소와 피해자 납치장소가 다를 경우에 시체를 유기하는 위치가 납치하는 위치보다 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잘 예측해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ott, 1999). 지리

표 2. 지리적 특성에 의한 연쇄살인범 구분

지리적으로 안정적인 연쇄살인범	지리적으로 이동적인 연쇄살인범
· 일정 기간동안 동일 지역에서 거주한다 ·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 혹은 근교에서 살인을 저지른다. · 거주 지역 혹은 근교에 시체를 유기한다	· 계속 여행을 한다 · 범집행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 · 먼 지역에 시체를 유기한다

자료 : Holmes & Holmes, 1996

적으로 이동적인 범죄자들은 1년에 수천마일을 여행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들은 체포를 피하고 범집행관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Holmes & Holmes, 1996).

사회적 특성

미국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매력적이며 남성적이고 경찰이나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범죄가 반복됨에 따라서, 점점 더 계획성이 없어지고, 살인을 행하는 시간적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범행에 사용되는 폭력은 증가하게 된다(Holmes & Holmes, 1996).

한편, 연쇄살인범들은 학교에서 교과수행을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학업적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련된 직업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며, 일부 범죄자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이들은 전반적으로 보통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군대, 사회관계, 직업의 측면에서 모두 열악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sler, Burgess & Douglas, 1988).

피해자의 선택

일반적인 다중 살인범들(classic mass murder)은 자신

의 피해자가 누가 되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중 살인범에게는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들은 피해자의 유형을 자신이 선택한다. 연쇄살인범은 스스로 피해자를 선택하고 범행의 장소와 과정을 계획하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인을 하지 않기도 한다 (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연쇄살인범에게는 실제로 범행을 하기 이전 상상의 과정이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이상적인 피해자의 상(image)을 지속적인 상상과정에서 만들게 되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때는 자신의 상상 속의 '이상'에 가까운 사람을 피해자로 선택하려고 한다. 또한 피해자가 수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어떻게 학대하고 어떤 폭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상상을 통해서 세세한 사항까지 생각해둔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정신적 상상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중요스러운 존재로 전이시켜서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왜곡된 도덕관을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합리화시켜서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된다(Holmes & Holmes, 1996).

환상

연쇄살인범들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상상을 통하여 폭력적인 충동을 키우고, 이를 계속 강화시킨다. 이들은 상상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자를 비인간화시키게 되고, 자신이 만들어낸 왜곡된 도덕관을 적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상상이 계속 정교해지게 되면 이것을 현실에서 시행해보고자 하는 욕구도 더욱 커지게 되고 상상만으로 얻게 되는 만족감이 점점 감소되게 되어 상상속의 폭력을 현실에서 실행하기 위해 준비하게 된다.



그림 1. 연쇄살인의 단계 및 시리적 기재

자료 : Holmes & Holmes, 1996.

피해자의 물색(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한 피해자를 학교, 이웃 혹은 직장에서 물색하게 되고 적절한 대상이 선택되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유괴. 범행을 실행하면서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마치 해충처럼 여기게 된다. 범죄자는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이유들을 스스로에게 만들어낸다. 현실에서의 범행의 실행은 단지 범죄자가 상상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에서의 죄책감은 느끼게 되지 못한다.

살해.

범죄자는 자신이 상상한 것들 중에서 자신의 만족을 가장 크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범행을 저지르며, 범죄자에게는 피해자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극이 된다.

시체의 유기.

시체를 처리할 때 보이도록 전시하는지 혹은 수사관들이 발견하기 어렵도록 숨기는지의 여부도 범죄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피해자의 시체를 전시하는 경우는 자신의 범죄 경력을 광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왜곡된 사고단계는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만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연쇄살인범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심리적 상태가 이 단계에 해

당되며, 이것은 연쇄살인범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의 도중에 어떤 사건의 계기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적 저하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이 단계는 외부의 자극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이고, 절대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다음 단계인 부정적인 내적 단계에서 연쇄살인범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며, 타인에 대한 우월성, 독단성을 갖게 되고, 범죄자 자신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같이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부정적인 외적 반응의 단계에 이르면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타인에 대한 우월성과 독단성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고, 더 이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상상 속에서만 실행했던 범죄를 실제로 저지를 결심하게 되고 범죄의 피해자를 물색하여 스토킹하고 유괴하기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여유를 되찾게 되고, 피해자를 신중하게 다루어 자신의 안전을 최대화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Holmes & Holmes, 1996). 시체의 유기까지 완료하게 되면 범죄자의 심리기제의 한 주기가 끝난 것이며, 범죄자는 만족감에 빠져 심리적인 안정상태에 이르게 되고, 다시 그림 2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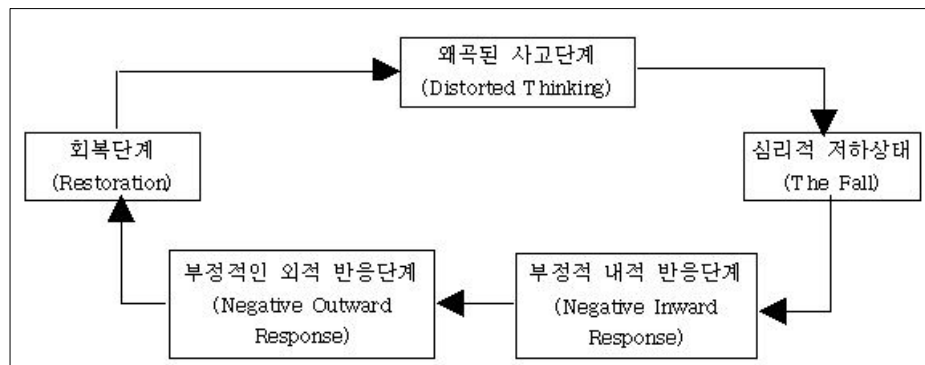


그림 2. 연쇄 살인범의 심리 기제
자료 : Holmes & Holmes, 1996.

왜곡된 사고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의 범행이 완료되고 심리적 만족감에 빠져서 왜곡된 사고단계로 가게 되면 다시 심리적 저하상태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데 이때가 심리적 냉각기가 된다.

임상적 진단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성적인 동기를 갖게 되는데, 특히 성적인 동기를 갖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들은 가학적 변태성욕(sexual sadism)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Holmes & Deburger, 1988; Geberth & Turco, 1997; Meloy, 2000).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성격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중인격장애, 해리성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되기도 한다(Anderson, 1999).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정신병(psychotic)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이들을 정신병질(psychopath) 혹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한다(Simons, 2001).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는 수치심이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또한 애정이나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린시절에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Simons, 2001; Egger, 1997). 성적 동기를 가진 연쇄살인범의 경우 성도착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물품음란증이나 의복도착증(cross-dressing)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Myers, Burgess, Burgess & Douglas, 1999).

최근의 연구(Beasley, 2004; Anderson, 1999; Simons, 2001)들에서는 연쇄살인범을 정신병질로 진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Beasley(2004)는 7명의 연쇄살인범에 대하여 심층적인 인터뷰, 사건자료의 검토, 정신병질 검사도구(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³⁾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7명의 연쇄살인범 중에서 4명이 정신병질로 진단되었

다. 정신병질은 외관상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이상의 수준을 지니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자신의 목적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을 갖는다(이수정 · 고선영 · 양종희, 2004). 최근의 연구(이수정 · 고선영 · 양종희, 2004; Kosson, Suchy, Mayer & Libby, 2002; Patrick, Cuthbert & Lang, 1994; Beasley, 2004; Anderson, 1999; Simon, 2001) 들은 연쇄살인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폭력 범죄들의 심리적 원인으로서는 정신병질을 의심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적용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현장을 분석하고 유형 및 무형의 증거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범죄자의 성격유형을 파악해내고, 다른 범죄들과의 유사성(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수사선을 설정하고 용의자를 파악해내기 위한 수사기법의 한 가지이다(Douglas, Ressler, Burgess & Hartman, 1986; Pinizzotto & Finkel, 1990; Rossomo, 2000). 범죄자 프로파일링⁴⁾은 1960-70년대 미국에서 기존의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강력 범죄들(연쇄살인, 강간, 성폭행, 방화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FBI의 행동과학부를 중심으로 개발된 수사기법이다. 1972년에 설립된 행동과학부의 요원들은 범죄자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수집해나갔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프로파일링을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행동과학부에 축적된 자료와 1978년 초에 실시된 교도소에 수감된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하여, FBI의 요원이었던 Douglas와 Hazelwood(1980)가 살인 및 연쇄살인을 체계적이고 비사회적인 범주(organized nonsocial category)와 비체계적이고 반사회적 범주(disorganized asocial category)로 구

3) PCL-R은 Hare(1986)에 의해 개발된 정신병질자의 특성을 측정해낼 수 있는 도구이며, 처음에는 22문항이었다가 이후에 20문항으로 수정된 반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을 통한 검사도구이다.

4)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매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사 기법 중 한가지이며, 강간, 살인, 고문 및 수족절단 등의 범죄에서 정신병리적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위의 범죄들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이 강조되지만, 자살이나 살인에서부터 뚜렷한 정신병리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심지어 은행강도나 스토킹에 대한 인질협상 등도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Holmes & Holmes, 1996).

분하였다. 이후에 Ressler, Burgess와 Douglas(1988)가 비사회적(asocial) 용어와 반사회적(nonsocial) 용어를 삭제하여 비체계적 및 체계적 범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구분은 성행위가 주된 동기로 작용하는 살인, 강간, 성폭행, 시체훼손, 시체성애 등의 범죄에 특히 유용하다. 체계적 및 비체계적 유형론은 FBI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구조적 인터뷰 기법에 의한 자료의 수집, 이론적 근거가 결여된 경험에 의존한 분석방식, 정확성 및 타당성 연구의 부족 등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에 근거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론에 근거한 프로파일링 기법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최근에는 통계적 접근방식에 의한 연쇄살인범죄의 유형분석과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프로파일링 방식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연쇄살인범죄의 유형론으로 일컬어지는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과 Holmes와 Holmes(1996)의 유형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검토한 후 최근의 통계적 접근방식을 통한 연쇄살인범죄의 유형 분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

이분법적 유형론의 전제

이분법적 유형론은 1972년 FBI에 행동과학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강력범죄들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지원하게 되면서 축적된 자료와 1978년에 실시된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유형을 체계적 및 비체계적인 형태로 나눈 방식이다.

이분법적 유형론의 주요 전제는 행동특성과 그에 상응하는 범죄자의 특징에 의한 범죄의 해석에 있다. 그리하여, 체계적인 범주는 체계적인 범죄자 특성에 상응하는 조직적·체계적이고, 사전 계획적인 범죄를 포함하며 전형적으로 성 도착 범죄가 이에 포함된다. 반대로, 비체계적인 범주는 무질서하고, 우연적이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범죄자 특성을 보이는 것을 포함한다(Kocsis, Cooksey & Irwin, 2002).

이분법적 유형론은 다음의 4가지 전제에 근거한다

(Holmes & Holmes, 1996). 첫째 범죄 현장은 범죄자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살인 범죄에서 피해자가 살해된 방식은 매우 중요하며, 다른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 증거 또한 범죄자의 성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범죄현장의 혼란스러운 정도에 의하여 범죄자의 성격이 체계적인지 혹은 비체계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범행방식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범죄현장은 숙련된 프로파일러가 범죄자의 “인증(Signature)”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기게 되는데, 인증은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매 사건마다 자신만의 동일한 혹은 최소한 유사한 양식을 보이게 된다. 셋째, 인증은 동일한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범죄자의 인증은 범죄자가 범죄를 행하는 단일한 방식을 의미한다. 인증에는 살해하는 방식, 강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시 하는 말, 범죄자가 범죄현장에 남기는 특정한 흔적(양식) 등이 포함된다. 넷째, 범죄자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핵심적인 성격특성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즉, 특정한 성격측면들은 변화될 수 있지만, 성격의 핵심적 요소들은 안정적이며 매우 경미한 변화들만이 시간, 상황, 주변 여건 등에 의해서 변화된다. 따라서 범죄자의 성격특성은 동일한 혹은 유사한 범행방식을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Holmes & Holmes, 1996).

이분법적 유형론의 내용

범행수법(M.O.)과 인증(Signature). 이분법적 유형론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범죄현장 분석 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때 남기는 두 가지의 심리적 단서 즉, 범행수법(Modus Operandi, M.O.)⁵⁾과 인증(Signature)이 그것이다(Holmes & Holmes, 1996). 범행수법은 수사관이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데, 범행수법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범죄분석 및 다른 사건간의 관련성 분석(linkage analysis)을 하게 된다. 범행수법은 학습된 행동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범

5) M.O.는 Modus Operandi의 약자로서 사전적으로 절차 작업 방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에서의 M.O.는 범죄자의 범행 방식을 의미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범행수법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표 3. 체계적 범죄인의 특성

성격 특성	범행 후 행동	인터뷰 기법
· 높은 지능 · 사회적으로 적절함 · 성적 능력을 갖음 · 파트너와 함께 생활 · 높은 출생 계층 · 어린시절에 엄격한 훈육 · 감정 통제 가능 · 남성적 이미지 · 매력적 외모 · 이동성이 있음 · 대중매체에 관심이 많음	· 범죄 현장에 돌아옴 · 경찰을 따라 다니는 경찰애호가 · 시체를 범죄현장에서 이동 · 시체를 광고하듯이 배치	· 직접적 전략의 사용 · 상세한 세부 내용 제시 · 범죄인이 자신이 한 일만을 시인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함

자료 : Holmes & Holmes, 1996.

표 4. 비체계적 범죄인의 특성

성격 특성	범행 후 행동	인터뷰 기법
· 평균 이하의 지능 · 사회적으로 부적절 · 비숙련 노동자 · 낮은 출생 계층 · 아버지의 직업이 불안정 · 어린시절에 학대 및 비일관적 훈육 경험 · 범행 동안 불안감을 느낌 · 혼자 생활 · 범죄 현장 가까이에서 거주하거나 일함 · 대중매체에 거의 관심이 없음 · 행동 변화가 큼 · 야간에 활동적임 · 위생상태가 좋지 않음 · 비밀장소를 가지고 있음 · 데이트를 하지 않음 ·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	· 범죄현장으로 되돌아옴 ·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음 · 종교로 귀의 가능성 높음 · 일기나 뉴스 기사를 오래 보관함 ·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음 · 성격 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 동정심을 보여야 함 ·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 · 상담적 접근법 사용 · 밤에 인터뷰할 것

자료 : Holmes & Holmes, 1996.

죄자가 보이는 ‘범죄자만의 독특한 행동양식’이다. 범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범행수법을 개발하고 범죄경력이 쌓이면서 자신의 범행수법을 수정하여 재형성하게 된다. 한편, 상승폭력범죄인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또 다른 범죄행동 요소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인증(signature)이다. 범행수법과는 다르게 인증은 일정하고 영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때때로 인증도 범죄자가 범죄를 계속 저지름에 따라서 진화되기도 하며, 범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Holmes & Holmes, 1996). 즉, 범행수법은 범죄

가 저질러진 방식 혹은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을 의미하며, 대조적으로 인증은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에 일관되게 표출되는 행동을 의미하지만,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범죄자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동은 아니다(Mott, 1999).

체계적 범죄자와 비체계적 범죄자의 행동 특성. 체계적/비체계적 범죄인은 각각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동특성을 보이게 되며, 체계적 범죄인은 체계적인 범죄현장의 특성을 보이고, 비체계적 범죄인은 비체계적인 범죄현장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분석의 기본 틀이 된다. 비체계

적인 범죄인은 스스로가 이상해보여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반면, 체계적인 범죄인은 자신과 어울릴만한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한다. 이들은 범죄를 촉발하는 촉발요인을 갖는데 이 요인들이 현실적 요인일 수도 있고, 상상에 의한 요인일 수도 있다. 체계적 범죄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집에서 멀리 여행할 수도 있고, 피해자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 데려갈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체계적인 범죄인의 체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Holmes & Holmes, 1996).

비체계적인 유형에 속하는 범죄자는 모든 부분에서 비체계적인 사람이다. 비체계적인 범죄자는 전형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내향적인 경향이 있으며, 어린 시절의 친구가 거의 없고, 주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상상속의 친구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범행현장이 그가 살고 있는 거주지 혹은 직장에서 가까운 경향이 있다.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에 대한 비판.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에 대해서는 체계적 및 비체계적인 유형구분이 과학적인 것인가 혹은 미신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분법적 유형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분법적 유형론의 기초적인 자료는 FBI 요원들에 의한 교도소에 수감된 연쇄살인범들의 인

터뷰 자료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주도한 요원들은 인터뷰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고, 인터뷰 또한 구조화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뷰 상의 문제에는 인터뷰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된다.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연쇄살인범 3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실시되었지만 이들이 전체 연쇄살인범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대표성의 결여는 이분법적 유형론의 일반화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분법적 유형론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분법적 유형론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이론적 배경과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의 부족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의 결여는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들이 인용하는 행동적인 혹은 심리적인 원리들을 자세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경험에 의존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게 만든다(Alison, West & Goodwill, 2004; Canter, Alison, Alison & Wentink, 2004).

세 번째 문제점은 이분법적 유형론에 근거한 프로파일링은 수사관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FBI 수사관들은 유능한 프로파일러의 자격 요건으로 다음의 자격을 제시한다. 첫째, 프로파일러는 심리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더불어 범죄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둘

표 5. Holmes와 Holmes(1996)의 연쇄살인 분류

분	류	내	용
환상에 의한 연쇄살인범	- 정신병적 경향 - 환청이나 환시에 의한 살인 - 범죄 현장을 조작하거나 계획하지 않음		
사명감에 의한 연쇄살인범	특정 집단에 대한 근절 욕구에 의한 살인		
쾌락에 의한 연쇄살인범	- 폭력과 성적 만족을 연결 - 성적 만족을 중시 - 살인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범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색욕적살인범 스릴 추구형 살인범	- 성적인 만족이 가장 중요한 동기 - 살인의 과정에서 만족감과 흥분을 느낌 - 과도한 교문 수반
권력적·통제적 연쇄살인범	-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감에서 성적 만족을 얻음 - 피해자에 대한 권한과 통제력이 1차적인 범죄 동기		

자료 : Holmes & Holmes, 1996.

째, 범죄 현장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범죄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성과 객관적인 분석능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이 프로파일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파일러는 범죄가 저질러진 방식에 대한 직관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FBI의 범죄현장 분석을 통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프로파일러의 직관과 경험을 통한 분석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직관과 경험이 범죄현장 분석 시 적용되는 과정이나 이러한 직관과 경험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Woodworth & Porter, 1999).

2. Holmes와 Holmes(1996)의 유형론

Holmes와 Holmes(1996)는 110명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행동기, 범죄현장의 증거, 피해자 특징, 살해방법, 범죄자의 공간적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쇄살인범의 유형을 다음의 4가지(하위유형을 포함하여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정신병적이지 않으며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다소 정신병질적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환상적 연쇄살인범은 정신병적 경향을 갖고, 자신만이 듣는 환청이나 환시(악마의 지시)에 의해서 살인을 한다. 사명감에 의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범죄자는 어떤 특정 집단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며, 이들은 특정 지위의 사람들이나 유대인, 흑인 등과 같은 집단에 대한 범죄욕구를 갖는다. 쾌락주의적이고 색욕적인 살인범은 폭력과 성적 만족을 연결시키며, 살인을 통해서 성적 만족을 얻게 된다. 이들에게 살인은 성적으로 자극적인 경험으로 작용한다. 살인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살인의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되고 따라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살인의 과정에는 식인, 사지절단, 사후강간(necrophilia), 고문, 피해자에 대한 지배 및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야기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권력적/통제적 유형의 살인범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감으로부터 성적 만족을 얻는다. 그러나 성적 만족이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권한이나 통제력을 갖는다는 느낌이 1차적인 범죄동기가 된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는 정신병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병질자나 인격장애자일 경우는 있다(Holmes & Holmes, 1996).

Holmes와 Holmes(1996)의 유형론에 대한 비판.

Holmes와 Holmes(1996)의 분류는 2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연쇄살인의 특징들은 각 유형 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두 번째 가정은 각 유형에 속하는 특징들은 다른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Canter와 Wentink(2004)는 4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료수집 절차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료수집이 범죄자와의 인터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뷰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인터뷰 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Holmes와 Holmes(1996)의 유형화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것이며, 셋째, 어떤 범죄나 범죄자가 어느 유형에 포함되는가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넷째, 분류 시 사용된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제된 범죄현장’이라든가 ‘살해방법에 있어서 행위에 초점을 둔 방식(act-focused method)’과 ‘절차에 초점을 둔 방식(process-focused method)’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 어떤 정보는 색욕적 살인범에 해당되고, 또 다른 정보는 권력 및 통제형에 해당되어 한 가지 유형으로의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Canter & Wentink, 2004).

3. Canter와 Wentink(2004)의 통계적 유형 분석

범죄, 피해자 및 범죄자 특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미국보다는 영국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6년, 영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발생한 성적 인 동기를 보인 아동 유괴 살인(sexually motivated child murders and abduction)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CATCHEM(Centralized Analytical Team Collating Homicide Expertise and Management)으로서, 경찰과 학자로 구성되어있다(Jackson &

표 6. 연쇄살인범죄의 유형에 따른 특징

환상에 의한 유형	사명감에 의한 유형	쾌락에 의한 유형	스릴 추구형	권력적·통제적 유형
약탈	곤봉 등으로 때려서	복합적인 범죄현장을 남김	복합적인 사건 현장	복합적인 사건 현장
소지품이 흩뜨러짐	위협 및 살해	여러 가지 성 행위를 함	구금	구금
옷이 찢겨짐	무기를 없앴	고문	고문	고문
무기를 남겨둠	목 절단	과도한 살인행위	재갈 물림	재갈 물림
우연히 발견한 무기 사용	권총 등의 화기 사용	성행위 동안 피해자 생존	성행위 동안 피해자 생존	성행위 동안 피해자 생존
옷을 질질 끌고감		강간	강간	강간
곤봉 등으로 때려서		물건 삽입	물건 삽입	할린 자국
위협 및 살해		생식기 훼손	치흔	물어뜯음
		흉관 훼손	손에 의한 교살	끈에 의한 교살
		복부 훼손	끈에 의한 교살	살인무기 없앴
		안면 손상	살인도구 없앴	사후에 시체 은폐
		물어뜯음	사후에 시체 은폐	시체 일부 없앴
		손에 의한 교살	시체를 숨김	증거 조작
		살인도구 없앴	고립된 지역에 시체 유기	참수
		사후에 시체 은폐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힘	시체 숨김
		시체 전시		고립된 지역에 시체 유기
		신체 일부 없앴		피해자에게 화상 입힘
		시체 숨김		
		고립된 지역에 시체 유기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힘		
		생식기에 폭행을 가함		

자료 : canter & Wentink, 2004

Bekerian, 1997)⁶⁾. 이러한 자료 구축은 1991년까지 계속 이루어졌고, 총 400여건에 대한 범죄의 세부내용, 피해자 정보, 범죄 현장 정보 및 범죄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분석은 검거된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해결된 사건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범죄들의 특징에 대한 일반적 구조를 산출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특정 사건에서 수집된 피해자 진술 및 범죄 현장의 특징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적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통계적 분석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모

수통계와 카이제곱 검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al regression)이나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이 적용되기도 한다(Daeid, 1997).

Canter와 Wentink(2004)는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Holmes와 Holmes(1996)의 유형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Holmes와 Holmes(1996)의 가정대로 연쇄살인 범죄의 특징들이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검증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발생한 100명의 연쇄살인범들이 저지른 범죄들 중 3번째 살인사건을 선택하여⁷⁾, 다차원척도법을 통해 100건의 연쇄살인범죄의 특징

6) 1982년 7월 Susan Maxwell, 1983년 Caroline Hogg, 1986년 Sarah Harper 라는 어린 소녀들이 연쇄적으로 유괴살해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86년 미해결된 아동 살해사건의 해결을 위한 회의가 내무부 주관으로 개최되어 이 회의를 통하여 영국 Derbyshire 경찰국의 부국장인 Don Onvaston이 이끄는 CATCHEM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Jackson & Bekerian, 1997; Turvey, 1999).

7) 연쇄살인사건들 중 3번째 범행을 선택한 것은 3건 이상의 개별적 사건이 발생된 경우가 연쇄살인에 해당된다는 정의와 첫 번째와 두 번째 범행의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Canter & Wentink,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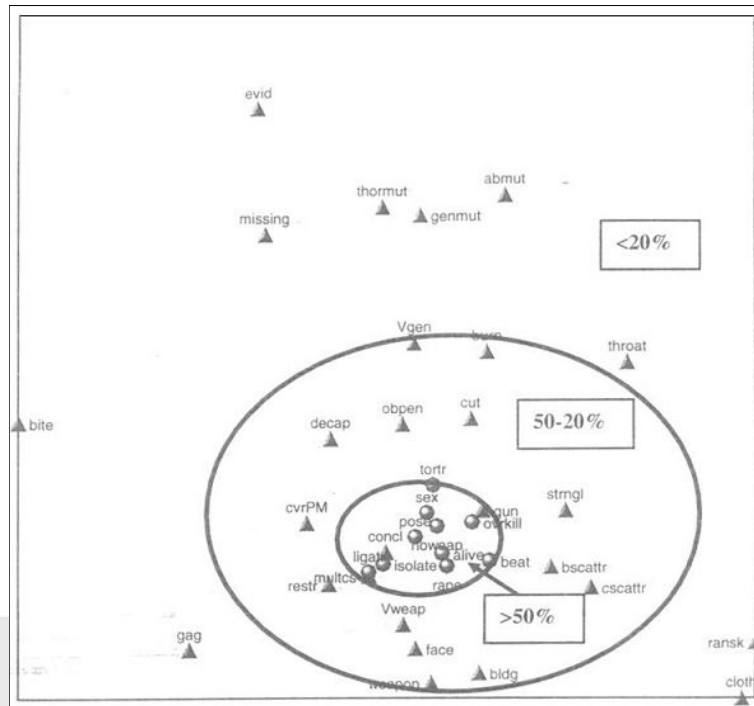


그림 3. 다차원척도법 결과 산출된 범죄현장 특지연수들의 좌표값
자료: Canter & Wentink, 2004

들이 각 유형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대상 저-차원 공간에서 점들 간의 거리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물 썩들 간의 유사성(혹은 비유사성)에 대한 측정치를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범죄 특징들 간의 상관을 보고자하며, 다차원척도법은 점으로 나타낸 각각의 범죄 특징들이 가깝게 위치할수록 그 특징들이 더 정적으로 상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면으로 제시된다. 즉, 각각의 범죄특징들은 공간상에 한 개의 점으로 표시되는데 두 개의 점이 떨어져 있을수록, 그 점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한 범죄에서 함께 나타날 확률이 낮아지게 되므로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른 유형에 속하는 특징들로 구분되는 것이다. 표 6은 Holmes와 Holmes(1996)가 제시한 각 유형의 특징들 중 Canter와 Wentink(2004)의 연구에서 선택된 변인들이다.

Canter와 Wentink(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차원척도법은 범죄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범죄들 간의 특징을 구별하거나 Holmes와 Holmes(1996)가 제안한 유형론을 지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유형별로 보면, 권력/통제적인 유형은 연쇄살인범의 유형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연쇄살인범들이 범행이 지속됨에 따라서 보이는 자연적인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살인범들은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행을 계속하는 것이며, 체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수법을 개발하고 체계화하며 피해자를 통제하는 행위는 연쇄살인범이 범행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시켜주는 자연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사명감에 의한 유형은 범죄현장에 나타나는 특징들로는 구분되기 매우 어려운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명감에 의한 유형에 포함되는 범죄 특징들은 다른 유형에 포함된 범죄특징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환상에 의한 유형, 색욕적 유형 및 스릴 추구 유형은 제한적으로 지지되었다.

Canter와 Wentink(2004)는 분석된 변인들 중에서 연쇄살인범의 범죄 현장 특징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3차원 공간분석⁸⁾을 통해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즉,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 피해

표 7. 10대 소년원 수감자와 10대 일반학생의 전과와 정서별 맥락점수와의 상관 (N=481)

전 과	평 균 (D)		분 노	슬 품
	해결된 사 건	미해결 사 건		
이동성 (Mobility)	2.20(.91)	2.11(.53)	1=place-specific 2=local 3=traveling	1.82
위치 (Location)	1.83(.97)	2.23(.96)	1=inside 2=both 3=outside	1.10
시체배치 (Body disposal)	1.65(.74)	2.22(.88)	1=none 2=some 3=all	0.81
취약성 (Vulnerability)	1.41(.69)	1.89(.98)	1=low 2=both 3=high	0.42
살인 사이의 시간적 간격	5.08(6.20)	4.26(4.10)	Number of victims/ Duration in years	-
χ^2	N=399	N=75	$\chi^2(5)=66.85^*$	

NOTE : D^2 =Mahalanobis distance

* $p<.05$

자료 : Mott, 1999.

자가 살아있는 경우가 91%였고, 다양한 성적 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66%. 강간이 74%, 물어뜯은 경우가 61%, 고문이 53%, 시체 전시가 75%, 과도한 살해 행위가 70%, 복합적인 범죄현장을 남기는 경우가 61%,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고립된 지역에 시체를 유기하는 경우가 54%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연쇄살인범의 성격이고 연쇄적인 측면들을 나타내주는 특징들이며, 범죄들의 유형을 구분해 주기 보다는 범행 스타일을 확인해 주는 특징들이므로 나타났다(Canter & Wentink, 2004).

4. Mott(1999)의 유형분석

Mott(1999)도 Holmes와 Holmes(1996)의 연쇄살인 유형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Mott(1999)는 연쇄살인 유형이 범행수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8) 3차원 공간분석(Three Dimensional Samll Space Analysis)은 차원을 3개로 고정하고 각 차원에서 범죄현장에서 나타나는 개별 특징들간의 공통성을 찾는 기법이다.

을 지적하고, 1800년부터 1995년까지의 399건의 해결된 연쇄살인사건과 1888년부터 1997년까지의 75건의 미해결된 연쇄살인사건을 비교하여 해결된 사건과 미해결된 사건을 살인이 발생하는 시간적 간격(rate of killing), 범죄자의 이동성(offender's mobility), 피해자의 취약성(victim's vulnerability), 살해현장과 시체 유기장소의 동일성 여부(presence of a body disposal site separate from the killing site for victims), 시체의 유기장소(body disposal sites)의 5가지 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해결된 사건보다는 미해결된 사건의 경우에 연쇄살인이 발생하는 시간적 간격이 더욱 클 것이다. 둘째, 해결된 사건에서보다 미해결된 사건에서 범죄자가 여러 사법권에 걸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이다. 셋째, 해결된 사건보다 미해결된 사건의 경우, 취약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더욱 많이 선택할 것이다. 넷째, 해결된 사건들보다 미해결된 사건들이, 살해 장소와 시체 유기장소가 다른 다수의 범죄현장을 더욱 많이 가질 것이다. 다섯째, 해결된 사건들보다 미해결된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의 시체가 야외에 배치된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이다. Mott(1999)는 각각의 변인들이 사건을 정확하게 분류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판별분석을 수행하고 두 집단을 판별하는데 있어 변인들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Mahalanobis 거리값⁹⁾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D^2 의 값이 크면 클수록 두 집단 사이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변인들이 더욱 유용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판별분석 결과, 5개 변수가 포함되어있던 모형의 χ^2 는 66.85($p<.05$)로서 유의한 판별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살인이 발생하는 시간적 간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변수들은 연쇄살인사건을 미해결 집단과 해결 집단으로 구분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Mott, 1999).

유의한 변수들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해결된 사건과 미해결된 사건의 분류에 있어 정확하게 분류된 경우와 부정확하게 분류된 경우를 산출한 결과, 75건의 미해결된 사건들 중 50건(66.7%)이 정확하게 분류되었고, 312건의 해결된 사건들 중에서 241건(77.2%)이 정확하게 분류된

9) 판별분석의 데이터들 변환시키는 통계기법이다.

표 8. 분류예측 오류표

집 단	사례수	정확률	부정확률
미해결된 사건	75	50(66.7%)	25(33.3%)
해결된 사건	312	241(77.2%)	71(22.8%)
총 합	387	291(75.2%)	

자료: Mott, 1999.

것으로 나타났다(Mott, 1999).

Mott(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적 간격에 있어서 해결된 사건이 미해결된 사건보다 연쇄살인이 발생하는 시간적 간격이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의 이동성과 관련하여서는 관계성의 방향이 가설에서 예상하지 않은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미해결된 사건보다 해결된 사건의 범죄자들이 더욱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취약성은 미해결된 사건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해결된 사건의 경우 다수의 범죄현장을 갖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결된 사건들이 시체를 야외에 유기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를 연쇄살인범죄의 수사에 적용한다면,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특정한 변인들이 사건을 해결 혹은 미해결의 두 범주 중 한 범주로 분류해줄 것이다. 이러한 변인들이 신뢰롭다면 수사관들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만약 미해결 범주로 분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그 사건이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미해결 범주의 범죄자들은 해결 범주의 범죄자들보다 심리적 냉각기(cooling off)가 더욱 길고 피해자들이 더욱 취약한 특성을 갖으며, 야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Mott, 1999).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기 FBI의 수사관의 경험과 연쇄살인범의 인터뷰에 근거한 이분법적 유형론, Holmes와 Holmes(1996)의 유형론 그리고 경험적 검증의 결여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최근의 통계적 접근방법에 이르기까

지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연구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검토해보았다. 과거의 범죄현장 분석에서는 범행수법을 통한 범죄들 간의 유사성을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로 작용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쇄살인범죄의 연계성을 파악해내기 위해 범행수법에만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수행되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수사관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통계학적 접근이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수사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룬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이론적인 유형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변인 분석을 통하여 연관성이 없던 연쇄살인사건들의 유형을 분석하여 유의한 특징을 찾아냄으로써 경찰수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초동수사에서 조속한 수사의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해줄 수 있다. 실무자의 직관과 임상적 판단에 의해 검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쇄살인범죄의 프로파일링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델링 되고 있는 것이 최근 외국의 추세이며, 또한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에서도 알고리즘의 개발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성과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쇄살인의 발생비율이 낮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며 아직은 자료의 축적이나 학문적 연구 및 실무적 분석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살인, 강간, 방화 등의 사건에 대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실무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으로써 2000년 2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범죄분석실이 설치되어 강력 사건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전문 수사관이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4월에는 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각 대학의 심리학자, 범죄학자, 정신분석 전문의들로 구성된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2000년 1월부터 범죄심리과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1-2명의 전문 프로파일러가 프로파일링 업무를 전담하여왔고, 이상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회도 그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경찰청에서 범죄분석을 수행할 전문 프로파일러를 훈련시키는 등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학계에서도 연쇄살인을 비롯한 강력 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의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비판점을 고려하여 수사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의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외국의 연구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죄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일 뿐 우리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연쇄살인범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수행해 나가야할 과제일 것이다. 즉, 외국의 연쇄살인범죄 유형론을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죄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외국의 선례에서 살펴본듯이,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검증이 결여되고 수사관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쇄살인 범죄에 대한 개념, 특성이나 유형 그리고 연쇄살인범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수행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적 범죄자 프로파일링 모델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대경 (2001).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1-23.
- 권창국 (2002).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Criminal Profiling Evidence)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통권 제52호), 247-280.
- 노용우 (2000). “성적 살인의 심리”,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3-144.
- 박광배 (2001). “범죄자 유형파악 (Criminal Profiling)”,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자료집, 33-54.
- 이수정, 고선영, 양종희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제10권 특집호 117-146.
- 임준태 (2003). “강력범죄에서의 범인상 추정기법(Criminal Profiling)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9집, 치안연구소, 149-321.
- Alison Laurence, West Adrian & Goodwill Alasdair (2004). “The Academic and the Practitioner Pragmatists’ Views of Offender Profiling”,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Vol. 10. No. 12. 71-101.
- Anderson, William R. (1999). “Can Personality Disorders Be Used as Predictors of Serial Killers?”. *Futurics*, Vol. 23, No. 3&4, 34-43.
- Beasley, James, O. (2004). “Serial Murder in America : Case Studies of Seven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2, 395-414.
- Canter, David, V., Alison Laurence J., Alison Emily & Wentink Natalia (2004). The Organized /Disorganized Typology of Serial Murder-Myth or Model?,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Vol. 10, No. 3, 293-320.
- Canter, David, V. & Wentink, Hatalia (2004). “An Empirical Test of Holmes and Holmes’s Serial Murder Typ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31, No. 4, 489-515.
- Daeid, N. Nic (1997). Differences in Offender Profil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Kingdom,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90, 25-31.
- Douglas John E., Burgess Ann W., Burgess Allen G., Ressler Robert K.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San Francisco : Jossey Bass Publishers.
- Douglas, J. E., Ressler, R. K., Burgess, A. W. & Hartman, C. R. (1986).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4, 401-421.
- Egger, Steven A. (1997). The Killers among Us :An Examination of Serial Murder and Its Investig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Geberth, V. J., & Turco, R. N. (1997).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sexual Sadism, Malignant

- Narcissism and Serial Murder”,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2, 49-60.
- Gerdes, L. (2000). *Serial Killers*, San Diego : Greenhaven Press Inc.
- Hare, R. D. (1986).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Multi-Health System.
- Hazelwood, R. R. & Douglas, J. E. (1980). “The Lust Murderer”,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49(4).
- Hickey, E. W. (1997). *Serial Killers and Their Victims* (2nd ed.), Pacific Grove, CA : Brooks /Cole.
- Holmes R. M. & Deburger, J. (1988). *Serial Murder*, Newbury Park, CA : Sage.
- Holmes Ronald M., Holmes Stephen T.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 An Investigative Tool*, U. S. : Sage Publication, Inc.
- Holmes R. M. & Holmes S. T. (1998). *Serial Murder* (2nd ed.), Thousand Oaks, CA : Sage.
- Jackson, Janet L. & Bekerian, Debra A. (1997). *Offender Profiling-Theory, Research and Practice*, England : John Wiley & Sons Ltd.
- Jenkins P. (1994). *Using Murder :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rial Homicide*, New York : Aldine.
- Kocsis Ricahrd N., Cooksey Ray W., Irwin Harvey J. (2002).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xual Murder: An Empirical Mod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5), 532-554.
- Kosson, D. S., Suchy, Y., Mayer, A. R. & Libby, J. (2002). “Facial Affect Recognition in Criminal Psychopaths”, *Emotion*, 2, 398-411.
- Lester, D. (1995). *Serial Killer: The Insatiable Passion*. Philadelphia : The Charles Press, Publishers.
- Meloy J. Reid (2000). “The Nature and Dynamics of Sexual Homicide: An Integrative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 5. No. 1, 1-22.
- Mott Nicole, L. (1999). “Serial Murder -Patterns in Unsolved Cases-”, *Homicide Studies*, Vol. 3, No. 3, 241-255.
- Myers Wade C., Burgess Ann W., Burgess Allen G., Douglas John E. (1999). “Serial Murder and Sexual Homicide”, *Handbook of Psychological Approaches with Violent Offenders : Contemporary Strategies and Issues*. NewYork : Plenum Publishers.
- Patrick, C. J., Cuthbert, B. N. & Lang, P. J. (1994). “Emotion in the Criminal Psychopath : Fear Image Process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23-534.
- Pinizzotto, A. J. & Finkel, N. J. (1990).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 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14, 215-233.
- Ressler, R., Burgess, A. & Douglas, J. (1988). *Sexual Homicide : Patters, Motives and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New York : Lexington.
- Ressler, Robert. K. & Shachtman, Tom (1992). *Whoever Fights Monster*, USA : St. Martin’s Press.
- Rossmo, D. K. (2000). *Geographic Profiling*, Boca Raton, FL : CRC Press.
- Simons, Cassandra L. (2001).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Serial Killers: The Thrill of the Kill”, *The Justice Professional*, Vol. 14(4), 345-356.
- Turvey, Brest, E. (1999). *Criminal Profiling :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New York : Academy Press.
- Warren, J. I., Hazelwood, R. R. & Dietz, P. E. (1996). “The Sexually Sadistic Serial Killer”,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41, 970-974.
- Woodworth Mike & Stephen Porter (1999). “Historical Foundations and Current Applications of Criminal Profiling in Violent Crime Investigations” *Expert Evidence* 7, 241-264.

A Review on the Typology of Serial Killings for the Criminal Profiling

Kyong Ok Kim Soo Jung Lee

Kyonggi University

Recently, social scientists' interest in serial killings is increasing. Since serial killings had sharply increased during 1960s-70s in U.S. the American law enforcement agencies were pushed to solve those criminal incidents. Therefore, they drew various investigative techniques. The criminal profiling was one of those techniques which was developed by FBI. Agents of FBI first collected serial murder cases and analyzed them, to produce typology of serial killings. This is the origin of criminal profiling. However, the methods FBI's analyzing serial killings were dependent of investigator's subjective judgements and experiences, which was pointed out as the most serial shortcomings of FBI profiling. Recently, social scientists applied statistical analyses for profiling serial murder cases. Based on objective interviews, police files, psychological batteries they filed serial murder cases. Then the empirically proven structures of serial killings were drawn by statistical inferences. This paper reviewed prior studies on this matter and suggested how to apply this kind of basic information for investigating serial murder cases in Korea.

Key words : profiling, serial murder

원고접수 : 2004년 12월 1일
심사통과 : 2005년 2월 3일